

광주 코로나 확진 7명 추가…4명은 감염원 몰라 ‘초비상’

일부는 증상 발현 이후 1주일 넘게 일상생활…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유흥시설 5종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광주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확진자 중 일부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이후 1주일 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도심 곳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749~755번 등 7명이 신규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오후 6시 이후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들 중 749~752번은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753번만 전북 426번 접촉자로 구분됐다.

더 큰 문제는 감염경로 미확인자 중 일부가 타지역과 접촉하고, 증상발현 이후에도 10일 가까이 일상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한 확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의심증상이 있었는데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했고, 또 다른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수일간 평소처럼 생활해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확진자 중 한 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광주 도심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에 따라 3~6일 한시적으로 유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날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지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집

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업소 등은营业을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사실상 1.5단계 수준으로 낮췄다.

광주시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경제활동 최소화 ▲가족·직장 외 외부인과 만남·모임 금지 ▲대화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연말은 가족과 집에서 보내기 ▲몸에 이상증상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 5대 행동강령을 강조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대기업과 대규모 점포, 대학교, 병원 등에서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타지역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들께선 반드시 코로나 확산 차단 행동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일 하루 동안 여수 1명(전남 445번), 장성 1명(전남 446번), 광양시 1명(해의 유입) 등 확진자 3명이 나왔다. 7일 오후 6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2명이다. 모두 여수에서다. 전남 448번은 지난 6일 확진된 전남 445번(여수) 접촉자로 둘 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전남 449번 확진자는 인천 식당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0시를 기해 기존 1.5단계(순전 2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되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방침보다



7일 광주시 북구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들의 문진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완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2단계 방역 수칙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營業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전남은 밤 10시까지 허용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정부 수칙보다營業時間을 1시간 늘린 밤 10

시까지 허용했다.

식당은 밤 10시까지 매장營業이 가능하며,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오락실·멀티방 방역수칙은 정부 수칙과 동일하게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시설면적 8㎡

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정부 수칙과 동일하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도민운동본부 8일 출범

광주전남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가 8일 오후 광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책토론회를 연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한 가운데 가장 쇠락·낙후한 광주·전남에서 시도민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운동에 나섰다. 전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는 이만원(광주대 교수) 상임대표의 출범사에 이어 엄창욱 경북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원이 ‘공공기관 활용한 광주전남 상생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정자 전남도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안영철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차장, 재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등이 토론을

별이게 된다.

이만원 상임대표는 출범사에서 “광주·전남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대폭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수도권 유출 비율이 광주 33.3%, 전남 47.2%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가장 낙후한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이전을 둘러싼 경쟁은 공멸이며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과 함께 광주와 전남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생의 길을 가는 물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덧붙였다.

엄창욱 교수는 주제 발제문에서 “산학연의 혁신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과 산업적 연계가 깊은 국책 혹은 민간 연구기관이 이주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선별과 추가이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이주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체의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일 박사는 주제 발제문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광주·전남의 대도와 기회로 활용하도록 이전 정책의 조기 결정, 대상기관의 확대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유치 및 조성의 차별화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에는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광주 NGO센터, 광주도시미래포럼, 광주·전남지역경실련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사)광주연구소, 한국산학협동연구원,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 광주·전남 등 낙후지역 중심 배치, 광주·전남의 상생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국가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시민단체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약속 지켜라”

전남도 시민단체들이 7일 광주시의 ‘광주공항 국내선의 2021년 무안국제공항 통합’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번 주 광주 민간공항 2021년 이전과 관련 입장 표명을 하기로 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시도민들에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황금영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 회장 등 20여 명은 성명서를 내려 “무안국제공항은 건설 당시부터 군공항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됐다”며 “광주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시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초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은 따로 시작된 문제였는데도, 어느새 하나의 연립방정식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많은 시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두 지역이 갈등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시는 민간공항 통합이 마치 군공항 이전이 전제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발언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이 당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 왜곡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며 “광주시와 시장은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350만 시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영암 AI 발생농장 10km 이내 농가 모두 음성

전남도는 7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인 영암 육용 오리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에 대한 AI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영암군 시종면 AI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 54곳이 있는데, 이

들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영암 육용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이날 오전 현재까지 다른 농장들의 의심 신고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남도는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지 : 22784㎡(6892평) • 건축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매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